일 주 문



제12회 금강산림대법회

진화 순천 송광사 주지 스님은 9월 29일~11월 17일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사자루서 '제12회 금강산림대법회'를 봉행한다.



태현 스님 열반 33주기 추모

영관 구례 화엄사 주지 스님은 9월 4일 경내 각황전서 '동헌당 태현 대종사 열반 33주기 추모재'를 봉행했다.



무진장 스님 열반 3주기 추모

지현 서울 조계사 주지 스님은 9월 5일 경내 대웅전서 '혜명당 무진장 대종사 열반 3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장경호 거사 추모기도회

김규칠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9월 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마포빌딩 3층서 장경호 거사 추모명상기도회를 개최한다.

영원한 행자시인 '정완영' 타계

8월 31일 한국시조시인협 문인장 엄수



한국 시조문학의 큰 별이라 불리는 백수(白水) 정완영 시인〈사진〉이 8월 27일, 향년 98세의 나이로 타계했다. 영결식은 31일 한국시조시인협회가 주관하는 문인장으로 치러졌다.

정완영 시인은 현대시조의 선구자로 시조의 중흥기를 열었던 한국 시조계의 거봉으로 평가된다. 1919년 경북 금릉에서 태어난 정완영 시인은 1941년 처녀작 '북풍'을 발표하고, 1947년 동인지 〈오동〉을 창간했다. 마흔을 넘긴 1962년 시조에 입문해 '조국'으로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됐고, 초중고 교과서에 실리며 널리 알려졌다. 정완영 시인의 삶은 불교였고, 그의 시조 속에는 부처님 사상이 녹아있었다.

전국 사찰을 다니며 사찰을 주제로 수많은 시조를 남기고 불교신문에 108편의 시조를 연재하기도 했다. 직지사 일주문 앞에는 '직지사운'이라는 시조비가 세워져 있다. 그의 작품 세계는 만해시문학상, 한국문학상, 가람문학상, 은관문화훈장 등으로 인정받았다.

노덕현 기자

인사 BBS불교방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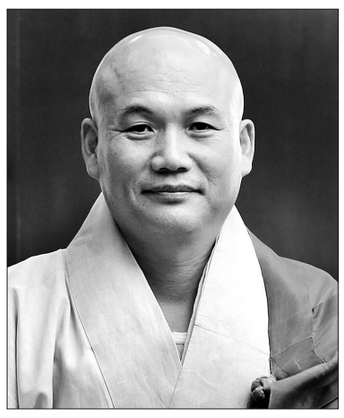
직위 승진 ▷김종천 경영기획실장 ▷홍금표 대구BBS 총괄국장 ▷손상국 울산BBS 총괄국장 ▷박성일 기술영상국 기술전략부장

전보 ▷배종식 대구BBS 기술부장 (이상 9월 1일자)

"마음·명상 저변 확대에 주력"

Interview

신임 한국문화연수원장 재안 스님



8월 29일 연수원장 임명

교계 마음·명상 개발 역설

"대중 다가가는 노력 필요"

"마음과 명상문화 보급은 불교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수원에서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8월 29일 한국문화연수원장으로 임명된 재안 스님〈사진〉은 "한국문화연수원이 이제 안정기에 들어섰다고 생각한다. 전임 스님들이 가꿔 놓은 문화연수원을 연수원만이 가진 천혜의 자원을 바탕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문화연수원은 2009년 6월 전통불교문화원으로 문을 연 이후 매년 2배 넘는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대표적인 불교계 연수기관이다. 종단 내 연수가 40%, 기업과 일반 연수가 40%를 차지한다.

이와 함께 20%는 명상분야로 새롭게 성장하는 부분이다. 2013년 명칭 변경 후 다양한 명상과 휴식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며 기업 및 일반인 참여도 대폭 늘고 있는 상황. 개원 이후 연간 2만5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5만7000여 명이 한국문화연수원을 이용했다. 총 이용액만 100억 원에 달한다.

재안 스님은 "현재 틀을 유지하되 여기에 불교문화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공주와 충청도, 중부권에 대해 불교계 기관 차원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을 꿈꾸고 있다"고 복안을 밝혔다. 지역사회서 불교계 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시사한 것이다.

스님은 "방향설정을 모색해보겠다. 선임자 스님들이 열심히 소임을 맡은 덕분에 문화연수원은 현재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중포교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재안 스님은 부안 개암사 주지 시절 마음명상 트레킹과 차명상, 녹차밭 포행 등을 개발해 운영한 경험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문화연수원은 향후 불교색을 담은 다양한 명상, 마음, 리더십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깝게는 9월부터 종단 리더쉽 심화과정과 함께 백제불교 답사, 재미있는 계율이야기 강좌 등을 실시한다.

재안 스님은 "불교가 사찰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중에게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며 "이 시대 현대인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연수원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재안 스님은 원조 스님을 은사로 1993년 수계(사미계)했다. 포교원 신도국장 및 포교국장, 직할교구사무처 사무국장, 안양사 주지, 개암사 주지를 역임하고, 현재 제16대 중앙종회의원이다. 이와 관련해 자승 스님은 "전임자가 알뜰하게 소임을 살아 체계를 갖춰 놓았으니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스님의 섬세함으로 잘 운영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한국미륵불교, 동토법맥증서 수여 대법회

동토법맥 종도 17명

전법게 수여, 7명 수계



(사)한국미륵불교(종정 법련, 총무원장 혜봉)는 8월 27일 총본산인 경남 고성 대무량사 대법당서 '한국미륵불교 동토법맥증서 수여 대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번 법회는 종단 총회와 문도회에서 유통정법사장지은(流通正法師長之恩)불사를 진행해 법맥계보편찬을 마치고 문도 단결과 정진을 위한 당호 건당식을 겸하여 봉행한 것이다.

이날 법회에는 종정 법련 스님을 비롯해 삼사 증명법사인 제주 극락암 달제 스님, 조계종 경주 보문선원장 대허 스님, 조계종 영천 도솔암 조실 몽산 스님과 한국미륵불교 총무원장 혜봉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법회는 제주 극락암 신도회의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삼사 증명법사의 축사와 봉행위원장 혜봉 스님 인사말, 종정 법련 스님 법어에 이어 헌공, 천수경, 예참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서 동토법맥 21조 종정 법련 스님으로부터 혜봉 스님을 비롯한 종도 17명은 법맥을 잇는 전법게를 받았고 7명의 종도가 계를 수지했다.

이번 법맥증서 수여법회를 주관해 온 삼사 증명법사인 제주 극락암 달제 스님은 축사를 통해 "한국미륵불교의 법맥을 잇는 뜻 깊은 행사로 승가의 끊임없는 정진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종정 법련 스님은 법어에서 "역대조사 20분의 위패를 모신 대무량사서 우리 종단의 법맥을 이어 무궁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정진 또 정진해야 하며, 역대조사의 수행을 알고 본받아 마땅히 그 뜻을 이어야 할 것"이라고 후학들의 정진을 당부했다.

이번 수여법회의 봉행위원장을 맡은 총무원장 혜봉 스님은 "동참해주신 대덕 큰스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은 한국미륵불교 법맥계보 건당식의 대역사적인 날이다. 창종 15년을 맞은 우리 종단이 오늘을 기점으로 법맥계보의 자부심으로 종정스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야 한다"며 "역대 조사님들을 섬기고 서로 화합해 크게 발전하는 종단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전법게 수여법회가 끝난 뒤에는 2부 행사로 함안군 가야국악 예술단의 공연이 이어졌다.

윤호섭 기자

무진회, 능인고교에 장학금 전달

총 3명에게 각 50만원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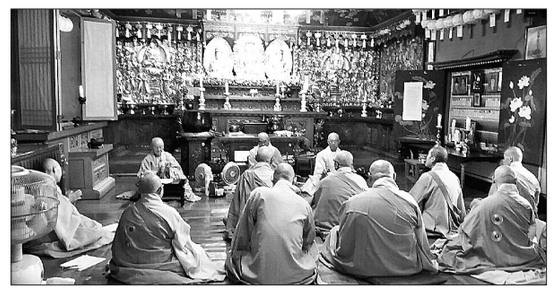


대구 경북지역서 수행과 포교에 매진하고 있는 스님들의 모임인 무진회(회장 정혜)는 8월 29일 조계종립 대구 능인고교 불교학생회를 방문, 12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서 무진회는 권효중·안형찬·홍혁진 학생에게 장학금 각 50만원을 수여했다.

윤호섭 기자

원융종 종정에 성관 스님 추대

종정 추대식 9월 25일 원융사서 봉행



대한불교원융종(총무원장 진호)은 8월 18일과 30일 2차례에 걸친 중앙종의회와 임원회의를 통해 원정당 성관 스님을 만장일치로 종정에 추대했다. 성관 스님은 1948년 4월 22일 출생, 도사 유념 법신 스님을 은사로 출가 득도하여 원융종 창종주 영산당 일공 스님에게 건당했다. 경기종무원장과 중앙종회의원, 중앙종회의장, 7대 총무원장 등 종단에 주요소임을 역임했다. 종정 추대식은 오는 9월 25일 총본산인 원융사서 봉행된다.

윤호섭 기자

거묵 스님, 어르신 위한 경로잔치

8월 25일, 대구 파계사 입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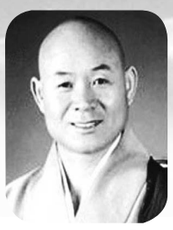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개혁회의 총무원장 거묵 스님은 8월 25일 대구 동구 파계사 입구서 동구지역 경로잔치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호법원장 자인사 구룡 스님, 사정부원장 혜월 스님, 재무 보정 스님을 비롯해 후원자로 월드불교연합방송, 성불사 법우 스님, 금덕사 상서 스님 등 50여명과 지역 어르신 500여명이 참석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6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 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6년 9월 30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